

2022년 인천아트플랫폼 <13기 입주 예술가 공모> 최종 심의 결과 안내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지역연구 오픈랩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보여 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인천아트플랫폼 2022년도 입주 예술가 및 오픈랩 프로젝트 레지던시 지원사업 공모 최종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21.

☐ 최종 선정자 명단(부문별)

1.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 예술가

가. 시각예술부문(11개월/2022년 3월 ~ 2023년 1월)

- 예술가			
순번	접수번호	성명	연락처
1	13202201050007	이OO	010-****-7234
2	13202201060009	이OO	010-****-2910
3	13202201100030	이OO	010-****-6915
4	13202201110046	이OO	010-****-4260
5	13202201120071	장OO	010-****-7211
6	13202201130093	신OO	010-****-9677
7	13202201130111	김OO	010-****-1678
8	13202201130129	김OO	010-****-9748
9	13202201140155	정OO	010-****-6998
10	13202201140160	이OO	010-****-2192
11	13202201140172	김OO	010-****-9249
12	13202201140224	이OO	010-****-8570
13	13202201140245	이OO	010-****-5499
14	13202201140295	임OO	010-****-6481
- 연구자			
순번	접수번호	성명	연락처
1	13202201140269	손OO	010-****-5857

나. 공연예술 부문(11개월/2022년 3월 ~ 2023년 1월)

순번	접수번호	성명	연락처
1	13202201110034	김OO	010-****-2924
2	13202201130095	이OO	010-****-0504
3	13202201140174	김OO	010-****-6234
4	13202201140265	박OO	010-****-9974

2. 지역연구 오픈랩 프로젝트 레지던시 지원사업 (6개월/2022년 3월 ~ 8월)

순번	접수번호	성명	연락처
1	13202201140182	김OOO	010-****-0830
2	13202201140241	배OO	010-****-2127
3	13202201140298	서OO	010-****-3367

☐ 예비 선정자 명단

1.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 예술가

가. 시각예술부문

구분	접수번호	성명
차순1	13202201140145	김OO
차순2	13202201140146	허OO
차순3	13202201140271	신OO
차순4	13202201090018	한OO
차순5	13202201130113	주OO
차순6	13202201120068	정OO
차순7	13202201120076	권OO
차순8	13202201140212	김OO

나. 공연예술부문

구분	접수번호	성명
차순1	13202201140143	김OO
차순2	13202201140223	조OO
차순3	13202201140244	최OO
차순4	13202201040003	이OO

2. 지역연구 오픈랩 프로젝트 레지던시 지원사업

구분	접수번호	성명
차순1	13202201140209	임OO
차순2	13202201140315	김OO

□ 입주 절차 및 오리엔테이션

○ 입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합니다.

○ 입실기간 : 2022년 3월 7일(월) ~ 3월 11일(금) 중

○ 입주 오리엔테이션 : **2022년 2월 28일(월)**, 14:00, 온라인(ZOOM)으로 진행 예정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선정된 예술가는 반드시 참석하셔서 계약서 작성, 입주 관련 안내, 스튜디오 배정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업실 배정은 오리엔테이션 전에 이메일(2/21/월 ~ 2/23/수) 안내에 따라 희망 신청 1순위를 받으며, 중복 시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안내합니다.

- 기타사항 : 오리엔테이션 진행 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필요

※ 입주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본인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필요(합격자 별도 안내 예정)

*그룹의 경우, 대표(신청자)는 모두 지참, 팀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만 제출)

□ 별첨

2022년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 예술가 공모 심의평

○ [1차] 레지던시 프로그램 시각예술부문, 오픈랩 프로젝트 레지던시 지원사업

2022년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예술가 시각예술부문과 오픈랩 프로젝트 레지던시 지원사업에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작가들이 지원하였고, 회화, 평면, 비디오나 설치, 퍼포먼스를 망라하는 다양한 장르의 작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년보다는 뉴미디어나 영상, 사운드, 다장르 실험뿐만 아니라 회화나 조각, 설치 같은 전통적 매체의 지원자 비중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은 창의적이고 시의적절한 연구주제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팬데믹 상황과 디지털 등 시사적 이슈에 반응하는 한편, 대체적으로는 개인적 관심사를 심화시키는 다수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작가들은 개인적으로 진행해온 작업의 연장선상에 계획안을 제안했고, 다양한 매체와 미학적 실험을 통해 팬데믹과 같이 전지구적 상황인 관련하여 전개하는 작업이 두드러지기도 하였습니다. 환경, 자연, 생태를 소재나 주제로 다루는 작가들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일부 작가들은 인천 지역에 대한 기대치를 담아 지역 기반 프로젝트를 계획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항구도시인 인천이라는 지리적, 지역적 특성과 연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레지던시 시각예술부문 1차 심사는 다양한 매체와 실험적인 작업을 선보이는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작가들이 많아 어려운 심사였지만 전반적으로 작업이 지향하는 바가 뚜렷하고 계획이 구체적인 작가를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창작 활동의 발전 가능성을 보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작품의 창의성과 독창성 등 창작 역량과 창작 활동 계획의 구체성과 충실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한정된 입주 기간에 나뉘는 결실이 나올 수 있는 계획안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천 연고자의 경우, 가산점 제도를 통하여 가점을 부여받았습니다. 구상 중인 작업의 실현에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레지던시의 입주가 작가 생활에 기점이 될 수 있는 경우도 긍정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인천 지역과 관련한 프로젝트 계획과 관련하여 인천이 단순히 소재일 뿐 다른 장소를 대입해도 무방한 피상적인 장소 특정적 프로젝트는 지양했고 지역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성실한 창작 활동 계획을 작성한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원자 수에 비해 선정 건수가 적어서 가능성이 있는 많은 작가를 선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역연구 오픈랩 프로젝트 레지던시 지원사업의 경우, 인천 지역 내 형성되어있는 커뮤니티와 소통하며 이루어지는 제안들이 많았으며, 작년보다 지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인천 연고 작가들이 다수 지원 및 선정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창작물이 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픈랩 부문의 경우 역시 작업 이력이나 취지에 설득력이 있는 경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소수자가 대상일 뿐 실질적 의미가 없는 사업계획은 지양하였습니다. 인천에 연고가 있는 젊은 작가들의 참여로 지역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통해서 인천의 지역성과 커뮤니티의 특색에 대한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접근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권혁규(뮤지엄헤드 책임큐레이터)

문혜진(미술평론가, 미술사·시각문화 연구자)

양옥금(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이성휘(하이트컬렉션 큐레이터)

이수영(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사)

*심의위원명은 가나다순입니다.

○ [최종] 레지던시 프로그램 시각예술부문, 오픈랩 프로젝트 레지던시 지원사업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입주 예술가 공모 2차 인터뷰 심사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레지던시 입주 예술가 및 연구자 부문에 30명, 지역연구 오픈랩 프로젝트 레지던시 지원사업 부문에 6팀이 참여하였으며, 그 가운데 입주 예술가 1명, 지역연구 오픈랩 1팀이 불참하였습니다. 본 심의위원회에서는 2차 심의 대상자들의 동시대 미술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경쟁력 있는 다양한 매체의 지원자들이 많아,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예술가를 선정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융복합 장르의 지원자들이 많다는 것은 인천아트플랫폼이 젊은 작가들의 실험 요람으로 제대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레지던시 기간 중 진행되는 창·제작 프로젝트 지원은 인천아트플랫폼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으로 많은 좋은 작가들이 인천에 주목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유의미한 작업의 제안이 이루어진 점은 고무적이었습니다.

2차 심사 대상자들은 주변의 다양한 오브제들을 수집, 변환, 가공하여 자신만의 주제로 재구성적 설치를 하는 경향이 다수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매체의 고유성이나 전통적인 창작 방법보다 평면, 입체·설치, 미디어, 퍼포먼스 등을 혼합하거나 융합한 형식이나 기법과 개념을 확장하는 경우가 지배적인 점이었습니다. 매체 정체성의 소멸은 인식의 경계가 이전과는 달리 모호해진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반응하는 작업도 눈에 띄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 한편, 인천지역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연구하며 지역 커뮤니티에 침투하려는 글로컬적 시도들도 다수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들의 다양한 장르나 실험적인 작업에 비해 인천아트플랫폼을 지원한 동기와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작업의 방법과 지원동기의 명분은 매우 적었으며, 인천지역 연구 작가의 지원이 저조하여 안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지역 연구 작가들을 선별할 수 없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러 장르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질문과 응시자들의 답변, 과거의 작업 실적 등을 통해 심사위원 각자가 점수를 부여했고 이의 합산을 통해 최종 선정자를 선발하였습니다. 다수의 지원자를 한정된 시간 동안 검토하다 보면 정교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지면, 주어진 시간에 자신의 세계를 요약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면접 심사의 경우, 준비된 텍스트를 읽는 것보다, 서툴더라도 진정성 있게 작업을 설명하는 방식이 짧은 인터뷰 심사 중 작업 이해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관념적인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짧은 면접 시간에 불필요한 토론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쉽고 직설적인 표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트렌드에 집착하여 진정성이 부족한 작업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자신만의 미술적 관심에 몰입하며 성실하게 작업을 꾸려나가는 작가들을 작업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입주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역량 있는 지원자 모두가 선발되기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세계를 가꾸고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선정자들에게는 인천아트플랫폼에서의 작업 기간을 통해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혜경(부산시립미술관 관장)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이종구(작가)

정현(인하대학교 교수, 미술평론가)

홍승혜(작가)

*심의위원명은 가나다순입니다.

○ [1차 및 최종] 레지던시 프로그램 공연예술부문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고 있는 인천아트플랫폼에 2022년 새롭게 입주하게 될 예술가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은 흥미로움과 함께 기대감 역시 더해진 과정이었으며, 이번 공연예술부문 공모에 지원한 예술가들의 프로필과 입주계획서는 그 어느 심의보다 매력적이었고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1차 서류심사는 지원 예술가들의 신청서와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지원자들의 입주 목적과 작업 계획을 통해 작업을 위한 공간을 꼭 필요로 하며 인천아트플랫폼의 스튜디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술가를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레지던시 입주 과정을 통해 창작 활동의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지, 단순한 작업 발표가 아니라 레지던시의 과정에서 그 입주의 목적과 과정을 통한 성과가 예측되는지를 변별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차 인터뷰 심사는 1차 서류 심사에서 선정된 13명(팀)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지원 예술가들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작업의 구체적 내용과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와의 관계성, 필요성, 타 입주 예술가들과의 협업 가능성과 기대감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인터뷰 심사에 참여한 예술가들의 작업은 모두 차별적이었고, 레지던시에 대한 각자의 필요성과 계획들이 잘 짜여 있어 최종 작가 선정에 많은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선정 기준에 있어서 레지던시를 통한 작가 개인의 창작 활동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거주하는 예술가들 간의 협업 가능성을 주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레지던시를 단순히 공간 사용의 기능을 넘어, 머물고, 영감을 받고 협업의 가능성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곳으로 인지하고, 그러한 작업이 일어날 수 있는 작가들을 고심하고 논의하여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에 지원한 예술가 모두 인천아트플랫폼의 필요성과 레지던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무엇보다 가치 있는 작품들을 기획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고무적이었습니다. 또한 최종 선정하지 못한 예술가들의 작품성은 놓치기에 다소 아쉬운 대목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가에게나 함께 하는 동료 예술가에게나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하여 활동하는 동안 인천예술계 및 인천시민과 연동되는 작업과 시간인 만큼 과정적으로 충실한 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고종석(음악평론가,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박지선(그룹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안경모(연극연출가)

*심의위원명은 가나다순입니다.